

체감 청년 실업률, 몇 %나 될까?

남재량*

I. 들어가며

지난 2월은 졸업 시즌이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새내기들이 그동안 대학이라는 울타리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토대로 인생의 부푼 꿈을 펼쳐 나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희망에 찬 씩씩한 청년의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들의 뒷모습을 걱정스레 지켜보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일할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실업자라 정의한다. 실업 가운데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하지만 만족스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워, 청년 실업 문제의 어려움을 응변해 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청년 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청년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다. 청년 실업률은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수인 경우가 보편적이며 심지어 40%에 육박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연령층의 경우와 달리 청년의 실업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청년은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 계층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더 역동적이게 되는데, 청년의 높은 이직률은 이를 잘 반영한다(남재량, 2006).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은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타연령층의 경우보다 매우 높게 된다.

나아가 청년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가운데에서도 특히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nam@kli.re.kr).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기업들은 예컨대 30~40대 근로자들보다는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청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청년 역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해 기존의 기간 연령 계층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의 비대칭적인 정도가 높을수록 근로자와 기업들이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따라서 청년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의 경우에 비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대체로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 이는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정도이나, OECD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09년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1%로서 OECD평균인 16.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더 낮은 경우는 네덜란드(7.3%) 정도에 불과하다.²⁾ 미국(17.6%), 영국(18.9%), 프랑스(22.4%) 등은 한국보다 크게 높으며, 독일의 경우도 11.0%로 높다.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도 25.0%로 매우 높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무려 37.9%로 한국의 4.7배에 달한다.³⁾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 100명 가운데 실업인 경우가 8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 졸업자 가운데 오히려 취직한 사람의 수를 세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공식적인 실업률이 한국 청년의 실제 구직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체감하는 청년 실업의 정도는 공식 실업률 지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불일치는 정부가 작성하는 공식 실업률 통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업 관련 통계를 20년 가까이 분석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어 작성하거나 왜곡하여 발표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의 실업통계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업통계 산출에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raw data)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약간의 노력만 들면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과 체감하는 청년 실업률 간의 괴리는 청년 ‘취업애로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의 실업자에다 구직을 단념한 사람, 학원이나 기관 등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그냥 쉬고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⁴⁾ 2009년 청년 실업자 34.7만 명에다 구직단념자 4.6만 명, 취업준비

1) 2010년 청년 실업률은 8.0%이며, 2011년 2월의 경우 8.5%를 기록하고 있다.
 2) 한국 청년의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OECD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을 15~24세로 정의 하더라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9.9%)보다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7.3%), 일본(9.1%), 노르웨이(9.2%), 스위스(8.2%) 정도에 불과하다.
 3) OECD(2010), *Employment Outlook*.
 4)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구직단념자’와 지난 1주간 ‘취업을 위한

자 41.1만 명, 그리고 그냥 쉬고 있는 27.8만 명을 모두 포함하면 청년 ‘취업애로층’은 108.2만 명에 이른다. 이는 공식 실업자의 3배를 넘는다. 이를 실업률로 환산하면 청년 실업률은 21.5%로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실업자를 이처럼 취업애로층으로 확대 정의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우리는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청년 실업률도 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취업애로층이라는 개념은 체감 청년 실업률 설명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를 다른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족 모두는 당연히 이들이 졸업과 더불어 알맞은 일자리를 구해 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청년 실업률을 높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은 청년 전체의 실업보다는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대졸자’의 실업을 염두에 두고 현실의 실업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실업통계는 ‘신규 대졸자’가 아니라 ‘청년 전체’의 실업률이다. 15-29세로 정의되는 청년 전체의 실업률, 즉 공식 청년 실업률은 대학 신규 졸업자 실업률, 즉 체감 청년 실업률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신규 대졸자 실업률이 청년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형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취업애로층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청년 실업률에 존재하는 커다란 수수께끼 하나를 푸는 셈이 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청년 실업과 대졸자 실업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Ⅲ장은 신규 대졸자 실업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신규 졸업자를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신규 졸업자 가운데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고 실업률과 고용률 그리고 비경제활동률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청년 실업과 대졸 실업

대학 신규 졸업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년 실업과 대졸자 실업 그리고 청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이나 ‘취업준비’를 주로 하였거나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년 가운데 대졸자의 실업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이는 신규 졸업자 및 신규 대졸자의 실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손쉽고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먼저 청년(15~29세) 실업률을 경제 전체 실업률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듯이 청년 실업률은 대체로 7~8% 범위에서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1년의 경우 1월과 2월의 청년 실업률을 제시하였는데 두 달 모두 8.5%로서 2010년의 8.0%에 비해 높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연초의 청년 실업률은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3% 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2월의 실업률이 높다. 청년 실업률의 경제 전체 실업률에 대한 비율인 ‘청년/전체’는 경제 전체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2월을 제외하고는 2.1~2.3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은 경제 전체에 비해 2배 남짓 높다.

<표 1> 실업률: 경제 전체 및 청년

(단위: %, 배)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1 | 2011.2 |
|-------|------|------|------|------|------|------|------|------|--------|--------|
| 경제 전체 | 3.6 | 3.7 | 3.7 | 3.5 | 3.2 | 3.2 | 3.6 | 3.7 | 3.8 | 4.5 |
| 청년 | 8.0 | 8.3 | 8.0 | 7.9 | 7.2 | 7.2 | 8.1 | 8.0 | 8.5 | 8.5 |
| 청년/전체 | 2.2 | 2.2 | 2.1 | 2.3 | 2.2 | 2.3 | 2.2 | 2.2 | 2.2 | 1.9 |

이제 실업률을 학력별로 살펴보자. <표 2>에서 보듯이 연도별 실업률은 중졸 이하 학력집단에서 가장 낮고 대졸 이상 학력집단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대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준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학력집단은 전문대졸로서 2009년을 제외하면, 표에 제시한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다. 반면 월별 자료를 보면, 2011년 2월의 경우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중졸 이하 실업률이 가장 높아 연도별 실업률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표 2> 학력별 실업률

(단위: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1 | 2011.2 |
|-------|------|------|------|------|------|------|------|------|--------|--------|
| 중졸 이하 | 2.2 | 2.5 | 2.6 | 2.4 | 2.1 | 2.2 | 2.4 | 3.0 | 3.8 | 5.1 |
| 고졸 | 4.3 | 4.5 | 4.6 | 4.1 | 3.8 | 3.8 | 4.4 | 4.2 | 4.4 | 4.7 |
| 전문대졸 | 5.1 | 4.7 | 4.9 | 4.3 | 4.5 | 3.7 | 4.3 | 4.6 | 4.3 | 5.0 |
| 대졸 이상 | 3.0 | 2.9 | 2.7 | 2.9 | 2.6 | 2.7 | 3.1 | 3.1 | 2.6 | 3.5 |

〈표 3〉 청년 학력별 실업률

(단위: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1 | 2011. 2 |
|-------|------|------|------|------|------|------|------|------|---------|---------|
| 중졸 이하 | 12.2 | 11.4 | 13.0 | 12.9 | 11.1 | 12.0 | 9.9 | 11.4 | 17.9 | 9.0 |
| 고졸 | 8.5 | 9.4 | 9.1 | 8.8 | 8.4 | 8.1 | 9.4 | 8.9 | 10.1 | 8.7 |
| 전문대졸 | 7.1 | 6.7 | 7.0 | 6.2 | 6.0 | 6.1 | 6.5 | 6.9 | 7.0 | 7.3 |
| 대졸 이상 | 6.8 | 6.7 | 6.0 | 7.3 | 6.1 | 6.2 | 7.3 | 7.5 | 5.5 | 9.1 |

이제 청년을 다시 학력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실업률을 살펴보자. <표 3>에서 보듯이 청년 대졸 이상 학력집단의 실업률은 다른 경우들에 비해 연도별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03~05년의 기간을 보면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가장 낮았고 2006~10년 동안에는 전문대졸 다음으로 낮았다. 월별로 보면, 2011년의 경우 1월의 대졸 이상 실업률은 5.5%로 가장 낮으나, 2월의 실업률은 9.1%로 가장 높아 변동성이 크다.

연도별로 보면 낮은 실업률 집단에 속하는 대졸 이상 집단의 실업률이 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1월보다 2월의 실업률이 오히려 더 낮다. 전문대졸의 경우 2월 실업률이 1월에 비해 높기는 하나 그 차이는 0.3% 포인트에 그친다.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1월 실업률은 5.5%로 매우 낮으나, 2월에 9.1%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졸업 시점인 2월의 청년 대졸 이상 고용 상황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청년 대졸 이상 가운데에도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의 노동시장 모습은 청년 전체나 청년 대졸 등의 경우와 크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

Ⅲ. 신규 대졸자 실업

이제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여 분석하도록 하자. 먼저 신규 졸업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의 실업에 대해 알아보자.

1. 신규 졸업자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는 1963년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오랫동안 조사

대상자의 졸업연도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 신규 졸업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었다. 남재량(2002)은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졸업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신규 졸업자의 직접 파악은 불가능하나, 경황을 패널로 구축하면 조사대상자의 학교 수학 여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부터 신규 졸업자를 식별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달 조사에서 ‘재학’이라고 답한 사람이 이번 달에 ‘졸업’이라고 응답하였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신규 졸업자로 파악할 수 있다. 남재량(2002)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규 졸업자를 식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패널구축에 따른 표본마모로 인해 조사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신규 졸업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외환위기가 지난 한참 후에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 실업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자 통계청은 청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부터 교육정도를 조사하면서 졸업을 한 경우 졸업연도를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표상의 ‘교육정도’ 조사에서 ‘수학 여부’를 ‘졸업’, ‘재학’, ‘중퇴’, ‘휴학’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졸업’에 해당할 경우 면접원은 ‘졸업연도’를 조사하여 기입해야 한다.⁵⁾ 따라서 이 자료를 사용하면 우리는 표본 마모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신규 졸업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와 실업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년을 대상으로 그 다음 1주간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계청은 2011년 2월의 경우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 말이 아니라 2월 중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2월 중순 이후 졸업자는 2월 조사에서 ‘졸업’으로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졸업연도 역시 조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는 2월 중순 이후 졸업자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2월 졸업자 모두를 포함한 분석은 3월 자료를 사용하면 가능하나, 3월 자료는 아직 가용하지 않으므로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2월 19일 이전에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므로 분석에 보다 많은 대졸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하도록 하자.

2. 신규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이제 신규 졸업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2003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

5) 졸업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10년 전 연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공개용)』, 2010)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시 1999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를 1999년으로 기입한다.

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여 보자. <표 4>는 2003년 이후 매년 2월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⁶⁾ 당해 연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응답한 ‘신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네 개의 행으로 구분된 행렬에서 각각의 대각선(diagonal)상에 있는 원소들은 각각 당해 연도 2월 중순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신규 졸업자의 수와 취업,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이하 비경활)에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보듯이 신규 졸업자 수는 연도별로 변화가 큰데, 2007년의 경우 9.4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0.5만 명에 이른다. 2010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의 수는 16.3만 명이고 2011년 2월의 경우 18.8만 명이다. 한편 2011년 2월에 조사된 사람 가운데 1년 전인 2010년에 졸업한 사람은 표에서 보듯이 32.6만 명이며, 2년 전 졸업자는 32.8만 명, 3년 전인 2008년 졸업자는 31.8만 명이다. 이처럼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대체로 연간 30만 명 정도가 신규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최근인 2011년과 2010년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 졸업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 보자. 먼저 2010년 2월을 보면, 신규 대졸자 16.3만 명 가운데 5.4만 명이 취업을 하였으나 3.9만 명은 아직 실업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7.0만 명은 비경활상태에 있다. 2011년의 경우 18.8만 명의 신규 대졸자 가운데 6.6만 명이 취업을 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하였다.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천 명 증가하였으며, 비경활은 8.1만 명으로 1.1만 명 증가하였다.

3. 대학 신규 졸업자의 실업률, 고용률 그리고 비경활률

앞의 <표 4>의 자료를 바탕으로 체감 실업률로 볼 수 있는 신규 졸업자의 실업률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자. 아울러 또 다른 중요한 노동시장 변수인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비경활률)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살펴보자. <표 5>와 <표 6> 그리고 <표 7>은 각각 이들 변수들을 측정한 표이다.

먼저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을 살펴보자. 이미 <표 4>에서 보았듯이 2011년 신규 대졸자 가운데 취업자가 6.6만 명이고 실업자가 4.1만 명이므로 이들의 실업률은 <표 5>에서 보듯이 무려 38.3%가 된다.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 즉 신규 대졸자 경제활동인구 100명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 일하고 있지 못한 사람, 즉 실업자가 무려 38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제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가운데 대졸 이상자의 2월 실업률이 매우 높았으므로, 우리는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6) 이는 조사시점을 일치시켜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는 것은 매우 놀랍다.7) 더군다나 이처럼 높은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2011년 2월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전년도인 2010년 2월의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41.8%로 40%를 넘어섰다. 신규 대졸자 10명 가운데 실업자가 무려 4명을 넘고 있다.

<표 4> 신규 대졸자의 수와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 명)

| | 졸업연도 | 조사시점 | | | | | | | | |
|-------------|------|---------|---------|---------|---------|---------|---------|---------|---------|---------|
| | | 2003. 2 | 2004. 2 | 2005. 2 | 2006. 2 | 2007. 2 | 2008. 2 | 2009. 2 | 2010. 2 | 2011. 2 |
| 신규 대졸자 수 | 2003 | 113 | 311 | 297 | 300 | 296 | 300 | 300 | 258 | 259 |
| | 2004 | | 205 | 306 | 322 | 313 | 293 | 300 | 304 | 310 |
| | 2005 | | | 177 | 318 | 308 | 308 | 300 | 306 | 317 |
| | 2006 | | | | 128 | 321 | 299 | 314 | 295 | 304 |
| | 2007 | | | | | 94 | 300 | 273 | 315 | 315 |
| | 2008 | | | | | | 132 | 304 | 305 | 318 |
| | 2009 | | | | | | | 157 | 368 | 328 |
| | 2010 | | | | | | | | 163 | 326 |
| | 2011 | | | | | | | | | 188 |
| 취업 | 2003 | 55 | 229 | 227 | 245 | 232 | 246 | 236 | 203 | 208 |
| | 2004 | | 83 | 225 | 247 | 259 | 238 | 246 | 236 | 247 |
| | 2005 | | | 81 | 229 | 239 | 255 | 243 | 263 | 271 |
| | 2006 | | | | 50 | 210 | 214 | 257 | 232 | 242 |
| | 2007 | | | | | 46 | 193 | 208 | 250 | 254 |
| | 2008 | | | | | | 58 | 216 | 243 | 259 |
| | 2009 | | | | | | | 62 | 246 | 253 |
| | 2010 | | | | | | | | 54 | 206 |
| | 2011 | | | | | | | | | 66 |
| 실업 | 2003 | 27 | 26 | 12 | 13 | 9 | 7 | 11 | 13 | 5 |
| | 2004 | | 56 | 20 | 13 | 7 | 11 | 13 | 9 | 4 |
| | 2005 | | | 26 | 19 | 10 | 7 | 15 | 9 | 5 |
| | 2006 | | | | 26 | 23 | 10 | 11 | 11 | 15 |
| | 2007 | | | | | 16 | 22 | 11 | 14 | 11 |
| | 2008 | | | | | | 24 | 19 | 13 | 7 |
| | 2009 | | | | | | | 31 | 44 | 22 |
| | 2010 | | | | | | | | 39 | 34 |
| | 2011 | | | | | | | | | 41 |
| 비경활 | 2003 | 30 | 56 | 57 | 41 | 55 | 47 | 52 | 42 | 46 |
| | 2004 | | 66 | 61 | 62 | 47 | 45 | 41 | 59 | 60 |
| | 2005 | | | 70 | 70 | 60 | 47 | 41 | 33 | 41 |
| | 2006 | | | | 51 | 88 | 75 | 47 | 51 | 47 |
| | 2007 | | | | | 32 | 85 | 54 | 50 | 50 |
| | 2008 | | | | | | 50 | 69 | 49 | 53 |
| | 2009 | | | | | | | 64 | 79 | 53 |
| | 2010 | | | | | | | | 70 | 86 |
| | 2011 | | | | | | | | | 81 |

7) 신규 졸업자의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남재량(200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신규 졸업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2~4월 평균 실업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7년 2월만 하더라도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25.5%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2월에 다소 상승하여 29.4%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09년 2월에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33.7%로 높아졌으며, 2010년 2월에 무려 41.8%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년 2월에 38.3%로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그 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변화도 매우 급격하다. 표에서 보듯이 2003년 2월의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33.1%였으나, 이듬해인 2004년 2월에 40.1%로 상승하였으며, 2005년 2월에 24.1%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다음 해 2월에 34.6%로 상승하고 있다. 요컨대 금융위기 전후를 막론하고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은 그 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경기에 지극히 민감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기 민감성은 사실 그동안 대졸 청년에게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잘 관찰되지 못하였던 특징이다. 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노동력을 해고하기보다는 신규 노동력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경기변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졸자의 실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표 5>에서 보듯이 2011년 2월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38.3%로 높지만, 2010년 졸업자의 2011년 2월 실업률은 14.3%로 하락하며, 2009년과 2008년의 신규 졸업자의 실업률은 2011년 2월에 각각 8.0%와 2.6%로 낮아진다.

이제 대학 신규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을 살펴보자. <표 6>에서 보듯이 신규 대졸자의 고용률은 2011년 2월에 35.2%에 불과하며 2010년 2월에는 이

<표 5>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

(단위: %)

| 졸업연도 | 조사시점 | | | | | | | | |
|------|---------|---------|---------|---------|---------|---------|---------|---------|---------|
| | 2003. 2 | 2004. 2 | 2005. 2 | 2006. 2 | 2007. 2 | 2008. 2 | 2009. 2 | 2010. 2 | 2011. 2 |
| 2003 | 33.1 | 10.0 | 4.9 | 5.0 | 3.9 | 2.8 | 4.6 | 6.0 | 2.6 |
| 2004 | | 40.1 | 8.0 | 5.0 | 2.6 | 4.2 | 5.0 | 3.7 | 1.5 |
| 2005 | | | 24.1 | 7.5 | 4.0 | 2.6 | 6.0 | 3.4 | 1.9 |
| 2006 | | | | 34.6 | 9.8 | 4.5 | 4.0 | 4.6 | 5.8 |
| 2007 | | | | | 25.5 | 10.4 | 5.1 | 5.2 | 4.1 |
| 2008 | | | | | | 29.4 | 7.9 | 5.0 | 2.6 |
| 2009 | | | | | | | 33.7 | 15.1 | 8.0 |
| 2010 | | | | | | | | 41.8 | 14.3 |
| 2011 | | | | | | | | | 38.3 |

<표 6> 신규 대졸자의 고용률

(단위: %)

| 졸업연도 | 조사시점 | | | | | | | | |
|------|---------|---------|---------|---------|---------|---------|---------|---------|---------|
| | 2003. 2 | 2004. 2 | 2005. 2 | 2006. 2 | 2007. 2 | 2008. 2 | 2009. 2 | 2010. 2 | 2011. 2 |
| 2003 | 49.1 | 73.7 | 76.7 | 81.9 | 78.1 | 81.9 | 78.8 | 78.6 | 80.3 |
| 2004 | | 40.5 | 73.7 | 76.6 | 82.8 | 81.2 | 81.9 | 77.7 | 79.5 |
| 2005 | | | 45.7 | 72.1 | 77.5 | 82.7 | 81.0 | 86.0 | 85.3 |
| 2006 | | | | 39.2 | 65.4 | 71.6 | 81.7 | 78.7 | 79.6 |
| 2007 | | | | | 49.2 | 64.3 | 76.1 | 79.6 | 80.7 |
| 2008 | | | | | | 43.9 | 71.1 | 79.6 | 81.2 |
| 2009 | | | | | | | 39.3 | 66.8 | 77.0 |
| 2010 | | | | | | | | 33.3 | 63.1 |
| 2011 | | | | | | | | | 35.2 |

보다도 낮은 33.3%이다. 2003년 2월에 49.1%로 높았던 신규 졸업자 고용률이 표에서 보듯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하락 추세를 보여 2011년 2월에 35.2%에 머물게 된 것이다. 경제 전체로 보면 60%에 육박하는 고용률이 신규 대졸자의 경우 최근 들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신규 대졸자의 취업난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고용률의 경우에도 실업률과 유사하게 졸업 후 해가 지남에 따라 빠르게 개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표 6>에서 보듯이 2011년 신규 졸업자의 고용률은 35.2%에 불과하나, 2010년 졸업자의 2011년 2월 고용률은 63.1%로 높고 2009년 졸업자와 2008년 졸업자의 2011년 2월 고용률은 각각 77.0%와 81.2%로 빠르게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신규 대졸자의 비경활률을 보자. 비경활률은 신규 대졸자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1년 2월 신규 대졸자의 비경활률은 42.9%로서 100명 가운데 43명 가량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경활률은 2003년 2월에 26.7%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비경활률이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비단 청년의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대졸자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도 대학 졸업 후 해가 거듭할수록 이러한 높은 비경활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⁸⁾ 다소나마 안도가 된다. 그러나 졸업 후 6개월이나 1년 혹은 2년이 경과한

〈표 7〉 신규 대졸자의 비경활률

(단위: %)

| 졸업연도 | 조사시점 | | | | | | | | |
|------|---------|---------|---------|---------|---------|---------|---------|---------|---------|
| | 2003. 2 | 2004. 2 | 2005. 2 | 2006. 2 | 2007. 2 | 2008. 2 | 2009. 2 | 2010. 2 | 2011. 2 |
| 2003 | 26.7 | 18.1 | 19.3 | 13.8 | 18.7 | 15.7 | 17.4 | 16.4 | 17.5 |
| 2004 | | 32.4 | 19.9 | 19.4 | 15.0 | 15.2 | 13.8 | 19.3 | 19.3 |
| 2005 | | | 39.8 | 22.1 | 19.3 | 15.1 | 13.8 | 10.9 | 13.0 |
| 2006 | | | | 40.1 | 27.5 | 25.0 | 14.9 | 17.5 | 15.5 |
| 2007 | | | | | 34.0 | 28.2 | 19.9 | 16.0 | 15.9 |
| 2008 | | | | | | 37.8 | 22.8 | 16.2 | 16.6 |
| 2009 | | | | | | | 40.8 | 21.4 | 16.2 |
| 2010 | | | | | | | | 42.8 | 26.3 |
| 2011 | | | | | | | | | 42.9 |

주: 단, 비경활률=(비경제활동인구/해당인구)×100.

후 취업할 경우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는 졸업과 함께 곧장 취업한 경우의 성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 거듭 제기된 청년 NEET의 지속적인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¹⁰⁾.

IV. 글을 맺으며

본 연구는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년 실업이 정부의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년 실업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청년층 전체보다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대졸자를 염두에 두고 이들의 취업을 우려한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 실업이 공

8) 2011년 신규 대졸자의 비경활률은 42.9%이나 2010년 대졸자의 비경활률은 26.3%로 하락하며, 2009년 대졸자의 비경활률은 다시 16.2%로 하락하고 있다.

9) 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10) 남재량(2011. 3).

식 발표되는 청년 전체의 실업이 아니라, 신규 대졸자 실업일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양자의 이러한 괴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취업애로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규 대졸자 실업률이 청년 전체 실업률보다 매우 높은 형태로 괴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취업애로충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움 없이도 청년 실업에 대한 커다란 수수께끼를 푸는 셈이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은 청년이나 대졸자 또는 청년 가운데 대졸자의 실업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0년과 2011년 2월의 신규 대졸자 평균 실업률은 무려 40.1%로 높았는데, 이는 동일시점 청년 전체 실업률 9.3%의 4배를 넘는 결과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실업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정부의 공식 통계는 청년 10명 가운데 실업자는 1명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왔다. 모두 청년 실업을 말하고 있으나, 한쪽은 신규 대졸자를, 다른 한쪽은 청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양자의 인식은 조화될 수 없었다. 마치 동일한 과일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한 사람은 사과를, 다른 사람은 오렌지를 머리 속에 상상하며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행히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차이를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 졸업자의 졸업 시즌 실업률이 40% 수준이라는 결과는 충격적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이들의 실업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신규 대졸자 실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경기가 나쁠 경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형태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규 대졸자들의 실업률 역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은 이러한 예상만큼 경기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청년 전체와 신규 대졸자에 대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률은 낮고 비경활률은 높았다. 즉 신규 대졸자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높다. 더군다나 이들의 고용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비경활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 대졸자들의 고용률과 비경활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취업이 지연될수록 이후 노동시장 성과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특징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산성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KLI**

<참고문헌>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2), 「청년실업과 신규 졸업자 실업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통계청 고용통계과(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공개용)』, <http://www.kosis.kr/metadata/>.

OECD(2010), *Employment Outlook*.